

사관학교 기출 - 채만식(논이야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기 직전, 한 생원은 아버지의 땅을 고을 원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 후 한 생원은 빚에 쪼들려 나머지 논과 멧갓을 일본인 길천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일본인이 물러가자, 한 생원은 길천에게 팔았던 논을 고스란히 되찾을 줄 알고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놈, 이 불한당놈들, 이 멧갓* 별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뻔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루구나?”
한 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별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같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멘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겐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늪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늪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멧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여?”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뉘 멧갓이길래?”

“내 멧갓이다. 한덕문이 멧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꼴 다 보니. ㉠ 팬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 나이깨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야, 행악야. 늪은인 다리뻑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구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론*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 멧갓이 그새까진 길천(吉川)이 것이라두, 조선이 독립됐은간 인전 내 것이란 말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멧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 구?”

“길천인, 일인(日人)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깐,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오오, 이 녀이 이 멧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래서.”

“㉡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구 가니깐, 이 녀은 팔았던 땅을 공짜루 도루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똥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두구, 어서 없어져 버려요.”

㉢ 난 뼈젓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시퍼런 돈 이천 환 주구서 계약서 받구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구 팔구. 돈 내구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구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8·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符同)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 하였다.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 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 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 뒤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한 생원은, 그 논이랑 멧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흥,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 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 병신년에 원놈(군수) 김가가 우리 논 열두 마지기 뺏을 제두 핑겐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느라 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아-니 글썸,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멧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산판(山坂).
* 해거: 괴상하고 알곳은 짓.

* 공수: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

* 야료: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댐.

- 채만식, 「논 이야기」 -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영남'은 '한 생원'의 행위를 술주정 정도로 여기며 얕잡아 보고 있다.
- ② ㉡ : '영남'은 멧갓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생원'의 생각에 황당해 하고 있다.
- ③ ㉢ : '영남'은 합법적으로 멧갓을 취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 : '한 생원'은 '원놈 김가'에게 속아 논을 빼앗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⑤ ㉣ : '한 생원'은 독립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평한 토지 분배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 ② 해방 전보다 더 무질서한 사회 현실에 울분을 느꼈기 때문에
- ③ 삼강오륜의 유교적 도덕관념이 무너진 현실에 절망했기 때문에
- ④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층에 실망했기 때문에
- ⑤ 해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4.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채만식은 해방 이후의 작품에서 해방기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변신을 꾀하는 친일파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민중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해방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무지하고 공동체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민중의 모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한 생원'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민중의 한 사람이겠군.
- ② '길천농장 산림관리인'은 시대의 혼란을 틈타 제 잇속을 챙기는 약삭빠른 인물이라 할 수 있군.
- ③ '한 생원'과 '영남'의 대화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독립을 사적인 관점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생원'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해방기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구장'과 '한 생원'의 대립에서,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